

# 14세기 기사도 관점에서 본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

이 동 춘\*

## 차 례

- I. 이상적인 기사의 덕목
- II. 가웨인의 기사도적 결점과 14세기 기사도
- III. 기사도의 꽃으로서 가웨인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와 관련하여 블룸필드(Morton Bloomfield)는 매우 영향력 있는 논문 하나를 썼다. 그 논문에서 블룸필드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14세기 역사와 문화가 작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14세기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와 더불어 블룸필드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봉건주의의 쇠퇴와 이에 대한 당시의 반응”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 작품의 내용을 고려해볼 때, 블룸필드의 이와 같은 암시 속에는 봉건주의의 쇠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당시 기사도의 변화된 위상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블룸필드의 질문의 범위를 축소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14세기 ‘기사도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작품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14세기 문학작품에 아더왕의 소재를 사용한 가웨인 시인(Gawain-poet)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울러 생각해보고자 한다. 작품에 투영된 당시 기사도 문화와 작가의 의도를 알아보기 전에 14세기 영국 사회의 기사도가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가를

---

\* 대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14세기 기사도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는 매우 다양하며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기사도를 세속 문화의 꽃으로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이를 사회의 오점으로 비하시키는 부류 또한 있다. 14세기 기사도에 대한 역사가들과 학사들 사이의 이와 같은 상반된 평가는 지금까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 후이징가(Huizinga)와 같은 사학자는 당시의 기사도를 탐욕, 잔인성, 이기주의, 냉정한 이해 타산 그리고 외교적 교활함을 감추기 위한 낭만적 픽션이라고까지 말한다. 한마디로 후이징가는 기사도를 외면상 현란하게 보이거나 실제로는 당시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쇠퇴의 기로에 놓여있던 이념으로 보고 있다. 기사도에 대한 후이징가의 평가는 작품의 투영된 기사도에 대한 비평가들의 평가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에 대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의 초점이 당시 기사도의 쇠퇴와 그 반향에 맞추어져 왔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일부 역사가들과 비평가들은 전쟁을 치르거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당시 기사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후이징가를 비롯한 일부 역사가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 가운데, 킨(Maurice Keen)은 자세한 연구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며 기사도의 전통과 가치가 14세기뿐만 아니라 그 후 서양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로 주장한다. 특히, 킨은 기사도가 꽃피었던 시기를 약 1100년에서 16세기 초까지로 잡고 있다. 이 같은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사도의 도덕적 위상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 혹은 추락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당시 설교자들은 기사도의 황금시대를 뒤돌아보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기사도가 조금은 타락하고 변질된 것으로 보았다. 아무튼 당시의 기사도를 일방적으로 폄하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렇다고 이상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코이퍼(Richard Kaeuper)의 비유대로, 마치 전선의 회복이 오래되면 조금씩 손상되고 벗겨어지듯이 초기와는 달리 14세기의 기사도가 변질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도의 전통이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에 투영된 기사도를 이해하는데 코이퍼의 지적만큼 적절한 것은 없어 보인다.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는 앞서 언급한 두 부류의 역사가와 비평가들의 관점을 모두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이퍼의 통찰력 깊은 견해 또한 입증하는 작품이다. 다시 말해서, 작품에서 시인은 기사도를 하나의 관점에서가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꾼이며 동시에 당시 문화의 기록자로서 시인은 당시의 기사도를 한편으로는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찬양하고 있다. 더구나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가웨인 경이 보여주는 기사도의 대하여 어떠한 최종적 평가를 내리지 않은 채 시인은 작품을 끝맺고 있다.

## I. 이상적인 기사의 덕목

작품의 초점은 주요 등장인물인 가웨인, 버실락(Bertilak) 그리고 아더왕을 비롯한 기사들의 행동과 태도에 맞추어져 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웨인과 버실락 그리고 아더왕의 기사들이 가웨인의 행동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이 서로 각기 다르다. 첫 번째 판단은 녹색의 기사로 위장한 버실락이 내리는 것으로, 기사도적 관점에서 볼 때, 가웨인의 행동에 문제는 있으나 이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눈감아줄 만한 것으로 그는 판단한다 (GGK 1. 2363). 두 번째로 가웨인은 죽음이 두려워 녹색의 띠를 받은 자신의 행동을 사정없이 비난하며, 이로 인하여 자신이 지켜온 기사도적 덕목을 다 잃게 되었다고 말한다. 세 번째 판단은 아더왕 궁전에 소속된 기사들이 내리는 것으로, 그들은 녹색 띠와 관련한 가웨인의 심각한 설명을 가볍게 웃어넘긴다. 게다가 가웨인이 수치의 표시로 생각한 녹색의 띠를 명예의 표시로 받아들여 이를 몸에 걸치고 다니게 된다. 앤더슨(J. J. Anderson)의 지적대로 기사도적 측면에서 볼 때, 가웨인의 행동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의 행동이 전적으로 실패한 것 또한 아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판단 가운데 시인은 어떠한 것에도 비중을 더 두지 않고 다만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안만을 제시할 뿐이다. 시인은 독자 스스로가 가웨인의 행동을 당시 기사도 문화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할 뿐 그의 행동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가웨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게 내려진다는 것이다. 기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 어떤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그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 달리 말하면, 당시 기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 서로 대립되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대립을 피해가며 모든 덕목을 온전히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가웨인 시인은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작품의 주인공, 가웨인과 그의 행동이 바로 14세기 실제 기사의 모습이요 행동이며, 시인은 당시 이러한 기사의 행동과 모습을 자신의 바라는 과거의 이상적인 기사의 모습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 시인이 생각하는 과거의 이상적인 기사란 가웨인의 방패에 새겨져 있는 오각형의 표지가 상징하는 기사도적 덕목을 모두 갖춘 존재이다. 따라서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처럼 모든 덕목에 갖추고 이것에 따라 완벽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당시 기사로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기사도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시인이 볼 때, 14세기 기사도가, 앞서 언급한 코이퍼의 지적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변질 혹은 변화는 피할 수 없으나, 그 전통과 가치만은 계속되어 왔음을 가웨인이라는 기사를 통하여 시인은 말하고 있다.

오각형의 표지가 상징하는 모든 덕목을 당시 기사들이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하기에 앞서 이들 덕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오각형의 표지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녹색의 기사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여정을 떠나기 전, 가웨인은 무장을 한다. 시인은 가웨인이 무장하는 모습 하나 하나를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독자의 시선을 끄는 것이 바로

오각형의 표지가 새겨져 있는 그의 방패이다. 시인은 두 개의 연(聯)을 할애하여 오각형의 표지가 상징하는 덕목들을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표지는 기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군사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덕목들의 복합체이며, 이 세 가지는 서로 각각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 세 가지 덕목들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쟁을 수행할 때 기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 용맹성은 물론, 평화로울 때 기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자비와 동정을 베풀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세속적인 덕목이외에, 기사는 하느님의 믿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기꺼이 수호할 수 있는 종교적 믿음 또한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각형의 표지는 기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임무, 다시 말해서, 하느님에 대한 임무, 왕에 대한 임무, 그리고 여자, 고아 혹은 미망인을 비롯한 사회의 약자에 대한 임무를 상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 임무를 수행한다고 이상적인 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든 임무를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다 지켜야만 이상적인 기사가 된다는 것을 표지는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라도 실패하게 되면, 마치 염주의 구슬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 모든 구슬이 다 흘러내리듯이, 전체의 구조가 다 무너지고 만다는 특징을 표지는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부분적인 덕목을 지키는 것만으로 완벽하며 이상적인 기사도를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각형의 표지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각형의 표지가 상징하는 덕목들은 당시 귀족사회에서 유행했던 기사도와 관련한 책자에 언급된 덕목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기사도와 관련한 현존하는 책자가 많은 편은 아니나 기사가 되려는 젊은이들에게 이상적인 기사도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일부 책자들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가운데, 레이먼 널(Ramon Lull)의 『기사도 계급에 관한 책』(*The Book of the Ordre of Chyvalry*)은 14세기 그리고 15세기에 인기가 있던 것으로서 진정한 기사도란 무엇이며 기사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를 적고 있다. 특히 교회개혁론자인 레이먼 널은 자신의 책에서

기사는 세속적인 덕목, 다시 말해서 용맹성과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종교적 덕목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이상적인 기사란 오각형의 표지가 상징하는바와 같이 세속적인 덕목과 종교적인 덕목이 합치된 인물인 것이다. 재미있게도, 그는 기사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옷으로 무장하는 장면을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기 위하여 사제복을 입는 장면과 동일하고 보고 있다. 즉, 레이먼 넬이 말하는 기사의 이상형은 세속적인 의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믿음을 수호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는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제프리 드 샬니(Geoffroi de Charny)는 자신의 『기사도에 관한 책』(*The Book of Chivalry*)에서 세속적 그리고 종교적 덕목이 이상적인 기사가 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먼 넬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 하나있다. 레이먼 넬은 이들 덕목들 사이에 균형을 강조하는 반면, 제프리 드 샬니는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덕목에 보다 큰 비중을 더 두고 있다. 제프리 드 샬니가 주장하는 이상적인 기사란 종교적인 덕목은 물론이고, 특히 기사 고유의 의무인 국가수호에 필요한 덕목들, 예를 들어, 용맹성, 용기, 충성심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울러, 이들 모든 덕목을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온전하게 다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에서처럼 제프리 드 샬니는 자신의 책에서 말하고 있다. 이들 14세기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세속적인 덕목과 종교적 덕목이 하나라는 사실은 15세기 말로리(Thomas Malory)의 작품, 『아더왕의 죽음』(*Morte D'Arthure*)에서도 드러난다. 과거 아더왕의 죽음을 소재로 삼고 있는 『아더왕의 죽음』(*Mort Artu*)에서 세속적인 덕목들, 예를 들어, 사랑 그리고 용맹성이 종교적인 덕목인 회개나 믿음과 분리 혹은 대립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말로리는 특히 랜스롯(Lancelot)의 마지막 모험을 기술하면서 두 가지 덕목을 화합시키고 있다. 14세기 그리고 15세기에 쓰인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이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에서 예외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완전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각형의 표지가 상징하는 덕목들 가운데 특히 세속적인 덕목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용맹성, 용기, 충성심,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자 혹은 고아들에 대한 동정과 사랑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웨인 시인을 포함한 당시 사람들은 믿었다. 그러나 가웨인 시인을 비롯하여 앞서 언급한 당시 기사도에 관심이 있었던 인물들은 기사가 모든 덕목을 온전히 지키면서 생활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 또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의 덕목을 실천하다보면 다른 덕목 하나가 쉽게 무시되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는 로맨스를 보면 아무리 이상적인 기사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힘없고 나약한 여성에 대하여 사랑하거나 애정을 품게 되면, 결국 왕이나 주군에 대한 자신의 충성 혹은 신뢰가 자연스럽게 약화되거나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다.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 II. 가웨인의 기사도적 결점과 14세기 기사도

작품에서 가웨인의 기사도적 덕목은 녹색의 기사의 갑작스런 도전으로 인하여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더왕 기사들의 명성을 익히 들어온 녹색의 기사는 이를 실제로 입증하기 위하여 크리스마스 축제가 한창인 아더왕의 궁정을 찾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전해들은 명성에 어울리는 행동을 아더왕의 기사들에게 요청하는데, 그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무모하면서도 위험한 것이다. 녹색 기사의 도전에 아더왕의 어느 기사도 응하지 않자, 결국 가웨인이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게 된다. 무엇보다도 왕과 동료의 명예를 구하려는 가웨인의 행동은 오각형의 표지가 상징하는 덕목들 가운데 하나인 왕에 대한 충성과 신뢰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데 필수적인 육체적인 힘과 같은 세속적인

덕목을 반영하고 있다. 녹색의 기사와 죽음의 게임을 치르기에 앞서 왕비 귀니비어(Guinvere)에게 경의를 표하는 가웨인의 모습에서 또한 당시 기사들이 지켜야 할 여성에 대한 공손함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모든 덕이나 능력을 자신의 삼촌이며 주군인 아더왕에게 돌리는 그의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녹색의 기사의 도전을 받아들임으로서 죽음을 기꺼이 수용하는 가웨인의 태도에서 기사가 지켜야할 세속적 덕목 가운데 하나인 종교적인 겸손함마저 드러난다. 한마디로, 녹색 기사의 도전에 응하는 가웨인의 태도와 행동에는 14세기 당시 이상적인 기사가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들, 예를 들어, 귀족 신분, 용맹성, 용기, 충성심, 신앙심과 겸손 등을 반영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기사도적 덕목들 외에 가웨인이 갖추고 있는 당시 기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인 귀족 신분에 대한 언급을 빼놓을 수 없다. 녹색의 기사가 제안한 죽음의 게임에 응하기 전, 가웨인은 겸손하게 자신이 아더왕과는 피를 나눈 사촌지간이라고 말한다. 당시 귀족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기사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후천적인 능력보다는 출신 성분이 기사가 되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레이먼 널의 경우, 귀족신분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기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시 기사도에 관한 또 다른 글을 남긴 크리스틴 드 피잔(Christine de Pisan)은 귀족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기사다운 인물이 되는 것을 아니나, 귀족 혈통이 기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제프리 드 샤페뉴가 기사도에 관한 책을 쓴 주요 목적이 중간계층을 포함한 귀족과 군주를 교육시키는데 있었다. 그의 이러한 목적을 가만할 때, 기사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후천적인 요소보다는 귀족혈통과 같은 선천적인 요소를 손꼽는 것에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당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가웨인이 귀족혈통을 타고난 기사라는 사실은 훌륭한 기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귀족 혈통과 같은 선천적인 요소와 더불어 기사다운 기사가 되기



위한 후천적 요소가 용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용맹성이다. 기사의 기본적인 임무가 나라를 지키고 왕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용맹성은 기사가 갖추어야 할 매우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덕목임에 틀림없다. 레이먼 널, 크리스틴 드 피잔, 그리고 제프리 드 샤프니 이들 모두는 기사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용맹성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사가 이러한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데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용맹성 그리고 용기이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서조차도 이러한 덕목을 지닌 기사라면 평화롭고 고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전투에 여러 번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제프리 드 샤프니는 어느 누구보다도 용맹성을 기사가 갖추어야 할 최상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한 용맹성 또한 진정한 용기와 충성심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제프리 드 샤프니 정도는 아니나, 레이먼 널 또한 용맹성이나 용기가 기사가 갖추어야 할 최상의 덕목들 가운데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다. 작품의 초반에서 가웨인이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는 기사도적 덕목으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웨인이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녹색의 기사의 제안에 응하는 그의 행동은 기사가 갖추어야 할 세속적 덕목인 용기, 용맹성, 그리고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시작부분에 드러나는 가웨인의 또 다른 기사도적 덕목은 종교적 믿음이다. 이 덕목이 앞서 언급한 세속적인 덕목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가웨인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작품이 시작하는 부분의 배경을 크리스마스로 설정하여 시인은 작품에 종교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같은 종교적 분위기는 가웨인이 녹색의 교회를 향하는 여정에서도 눈에 띈다. 가웨인은 여정 동안 미사를 올릴 수 있는 장소로 자신을 이끌어 줄 것을 그리스도와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요청한다(GGK 753-62). 이외에도, 여정 동안 그가 자주 읊조리는 종교적 표현 및 기도 등은 가웨인의 종교적 믿음을 말해준다. 또한 버실락의 성에 머무는 동안 가웨인은 교회를 찾아 미사에 참여하며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기도 한다. 작품

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웨인의 종교적 표현과 그리스도와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횟수는 그가 종교적 믿음을 지닌 이상적인 기사임을 입증해주기에 충분하다. 기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장하는 모습이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레이먼 넬의 주장이 가웨인의 이러한 모습에 적절하게 적용이 된다. 한마디로 가웨인의 임무수행은 단순하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또한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보여주고 있다. 가웨인이 보여주는 이러한 신앙 깊은 모습은 미신적 힘을 지닌 녹색의 띠를 받기 전까지 흔들리지 않아 보인다.

녹색의 기사를 찾아가는 도중에 가웨인이 보여주는 세속적인 덕목들은 종교적 믿음과 함께 당시 독자들이 그를 기사도의 표본으로 여기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기사로서 가웨인의 명성은 카멜롯(Camelot) 궁전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버실락 부인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 버실락의 성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작품의 화자는 말해주고 있다(GGK 912-4). 그러나 버실락 부인의 유혹으로 인하여 오각형의 표지가 상징하는 기사도의 덕목과 가웨인의 명성은 실추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제 3장에서 가웨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기사도적 덕목들 사이의 상충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의 기사다운 모습 또한 흔들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유혹에서 버실락 부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전해들은 가웨인의 기사도적 명성을 들먹거리며 그를 유혹하기 시작한다. 그녀가 정의하는 기사의 명성이란 세속적 덕목인 용맹성, 용기 그리고 신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과 여자에 대한 겸손하며 예의바른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부인의 적극적인 사랑공세를 피하기 위하여 가웨인은 기사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가웨인은 부인의 첫 번째 유혹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난다. 이로 인하여 그는 성주인 버실락과의 신의를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부인에게 또한 기사로서의 무례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틀째가 되던 날 아침, 성주의 부인은 가웨인 경을 다시 유혹하기 위하여 그의 침실로 들게 된다. 첫날처럼, 여성에 대한 기사로서의 역할과 태도를 강조하면서 부인은 가웨인을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한다. 레이먼 넬의 주장처럼 여성에 대한 기사의 태도 혹은 역할

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기사도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가웨인 경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접근에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부인은 프랑스 로맨스에 나오는 랜슬롯과 같은 기사가 여성에게 베푸는 사랑의 언어와 행동을 설명해가며 가웨인을 더욱 더 압박하게 된다. 기사의 역할과 모습에 대한 그녀의 생각과 해석은 세속적 그리고 종교적 덕목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오직 여성에 대한 사랑만이 기사를 평가하는 척도로 보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 유혹에서도 가웨인은 오각형의 표지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기사도적 덕목들, 예를 들어,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맹성과 용기 그리고 군주, 동료 그리고 부하에 대한 신의와 종교적 믿음에 어떠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성공적으로 그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유혹에서처럼 기사로서 여성에 대하여 지켜야 할 태도를 잃지 않은 채 가웨인은 작품의 초반에 보여준 이상적인 기사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Thus she tested his temper and tried many a time,  
Whatever her true intent, to entice him to sin,  
But so fair was his defense that no fault appeared,  
Nor evil on either hand, but only bliss  
they knew. (1549-53)

그처럼 그녀는 그의 성품을 시험했고, 수차례 걸쳐  
그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가 죄를 범하도록 유혹  
했으나,  
어떠한 결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방어는 대단했고,  
어느 손으로도 악을 범하지 않았고, 단지 축복만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뿐.

세 번째 유혹을 시도하기 위하여 부인이 가웨인의 방에 들자, 가웨인은 잠이 들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가웨인은 곧 부인에 정중한 태도를 보이며, 기사로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성주, 버실락의 신의

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 가웨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가웨인이 궁극적으로 유혹에 빠져들어 오각형의 표지가 말해주는 기사도적 덕목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도록 만든다. 결국, 그녀와 헤어지면서 가웨인은 위험에 처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다는 그녀의 유혹에 빠져 녹색의 띠를 그녀로부터 받고 만다. 게다가, 가웨인은 그녀의 요청에 따라 녹색의 띠를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그녀의 남편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그녀에게 약속까지 하게 된다. 목숨이 두려운 나머지 가웨인이 녹색의 띠를 받음으로서 자신이 지금까지 아무런 결함 없이 지켜온 세속적 덕목인 용기와 용맹성을 가웨인은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성주인 버실락과의 믿음과 약속 또한 이로 인하여 무너지고 만다. 특히, 종교적 믿음이 아닌 미신적인 물건을 통하여 생명의 구원을 얻으려는 가웨인의 태도는 기사로서 그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인 신앙심마저 저버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적인 목적 때문에 녹색의 띠를 받음으로서 가웨인은 이상적인 기사에게 부과되는 공적인 덕목들을 잃게 되고 만다. 이러한 가웨인의 모습을 시인은 상징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시인은 제 2장에서 가웨인이 녹색의 기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출정할 때의 모습과는 달리, 녹색의 띠로 인하여 그의 갑옷에 새겨진 오각형의 표지가 가려진 가웨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In his richest raiment he robed himself then:  
His crested coat-armor, close-stitched with craft,  
With stones of strange virtue on silk velvet set:  
All bound with embroidery on borders and seams  
And lined warmly and well with furs of the best.  
Yet he left not his love-gift, the lady's girdle:  
Gawain, for his own good, forgot not that: (2025-31)

그런 다음 그는 화려한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장식된 갑옷은 솜씨 있게 촘촘히 수놓아져 있었고,  
독특한 가치를 지닌 보석들이 비단 천에 박혀 있었으며:  
(갑옷의)가장자리와 봉합선 위에 자수(刺繡)장식과 함께 모든 것

이  
잘 엮여 있었고 최상의 모피로 따뜻하게 잘 안감이 붙여 있었는  
데,

그는 사랑의 징표인 그 부인의 띠를 두고 가지 않았는데;

가웨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잊지 않았는데;

가웨인이 녹색 띠를 수락함으로써 입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용기와 용맹심의 상실이다. 죽음의 운명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더왕과 동료 기사들의 명예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가웨인에게 이 두 가지 덕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축제의 시기에 죽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에게 남다른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더왕의 궁전에서는 물론 버실락의 성에서도 기사의 덕목들 가운데 용기와 용맹심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가웨인은 기사에게 가장 필수적이며 중요한 덕목인 용기를 버리고 만다. 용기를 상실한 가웨인의 모습은 그가 녹색의 기사와 직면했을 때 명백히 드러난다. 그 상황에서 가웨인의 모습은 작품의 앞부분에서와는 다른 보통의 인간 그 자체에 불과하다. 죽음에 직면한 가웨인은 결국 두려움 때문에 녹색의 기사가 내리치는 도끼를 피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녹색의 기사는 허울뿐인 그의 용기를 조롱하게 된다.

버실락 부인의 유혹으로 인하여 용기와 함께 가웨인 경이 잃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덕목이 바로 충성심이다. 가웨인이 녹색의 띠를 받은 동기와 이를 받은 후 그가 보여주는 회개하는 모습은 독자들의 동정을 사기에 충분하게 보인다. 그러나 성주인 버실락과 맺은 약속을 어긴 것은 아더왕과 그의 기사를 대표하는 공인이며 기사로서 역할을 저버리는 행동으로서 당시 기사도의 규범에 비추어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실제로 시인은 당시 기사들에게 이와 같은 덕목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작품을 통해서나마 비난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레이먼 널은 기사도에 관한 책에서 기사의 용기는 충성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하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하나는 자연히 사라지고

만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용기는 기사가 지켜야 할 세속적인 모든 덕목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세속적 덕목들 가운데 최고인 셈이다. 당시 기사도적 관점에서 볼 때, 용기가 없는 기사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레이먼 넬의 입장은 제프리 드 샤프의 입장과 일치한다. 기사로서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제프리 드 샤프의 입장이 이 점에 있어서 레이먼 넬의 입장보다 더 확실하고 단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외에도, 레이먼 넬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충분한 용기를 지니지 않은 기사는 유혹을 극복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불충(不忠)과 탐욕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기사는 명예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며 오직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포로들로부터 지나친 몸값을 요구하는 등의 물질추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주군을 배반하는 불충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녹색의 기사로부터 반격을 당한 뒤, 자신을 향한 가웨인의 자책(自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GGK II. 2374-75). 가웨인은 버실락 부인으로부터 녹색 띠를 받은 자신의 행동이 비겁함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죽음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자신이 결국에는 탐욕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가웨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GGK II. 2380-81). 가웨인의 행동을 정리하자면, 가웨인 경의 주장대로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용기를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버실락 부인의 녹색의 띠를 탐(貪)하게 되고 결국에 버실락에 대한 신의와 충성심마저 그는 저버리게 된다. 세속적인 덕목을 지키지 못하는 기사는 결국 탐욕에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레이먼 넬의 가르침과 가웨인 시인의 지적이 제프리 드 샤프의 책에도 언급되고 있다. 기사란 많은 부를 축적해서는 안되며, 그 이유는 인간은 더 모으면 모을수록 죽기를 거부하며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드 샤프는 설명한다. 레이먼 넬과 마찬가지로 제프리 드 샤프는 기사의 세속적인 덕목이 인간의 세속적 욕망과 얼마나 상충되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가웨인 시인이 기사가 갖추어야 할 세속적 덕목들 가운데 유독 용기와

충성심뿐만 아니라 기사들의 세속적 욕구에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작품이 쓰여진 14세기 동안 기사들의 물질추구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심각했다는 사실을 기록은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상인들과 물건은 물론 값비싼 보석이나 땅을 교역하기도 하였고, 100년 전쟁을 치르는 동안 상대방의 포로들로부터 값비싼 몸값을 받아내어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역사학자 알덴드(C. T. Allmand)는 당시 전쟁을 벌인 가장 주된 이유로 경제적인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의 기사 혹은 귀족들은 국가를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알덴드는 100년 전쟁을 한마디로 '황금 열망'으로 가득했던 중세시대 전쟁으로 특징짓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가웨인 시인은 가웨인이라는 아더왕 시대의 기사의 모습을 통하여 과거 국가를 위하여 사심 없이 봉사했던 과거 이상적 기사의 모습을 동경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당시 기사들이 물질적 탐욕으로 인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타락해 있었음을 역사가는 물론 가웨인 시인을 비롯하여 앞서 언급한 레이먼 넬 그리고 제프리 드 샤프는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의 띠를 두름으로서 가웨인은 자신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기사도의 세속적인 덕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탐욕의 죄까지 범하게 된다. 가웨인의 그러한 행동은 또한 기사도의 또 다른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종교적인 믿음마저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세속적인 덕목과 함께 종교적 믿음이 당시 기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가웨인 시인은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이를 입증하듯이 가웨인 시인은 의도적으로 작품 안에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와 함께 종교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표현과 이미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가 가웨인 시인이 쓴 『진주』(Pearl), 『순결』(Cleanness) 그리고 『인내』(Patience)처럼 직접적으로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가웨인의 행동과 관련하여 종교적인 내용 혹은 표현들이 작품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 녹색의 기사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가웨인이 보여주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매우 돈독

해 보인다. 그러나 녹색의 띠가 목숨을 보호해줄 수 있으리라는 헛된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하느님을 버리고 물신을 숭배한 꼴이 된다. 물론 가웨인이 마술적 힘에 의지하는 것은 당시 기사도 교범에 벗어나는 행위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다행히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가웨인은 자신의 타락한 면모를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스스로 회개하게 된다. 아울러 도덕주의자처럼 가웨인은 기사를 비롯한 모든 인간이 육체적으로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한다.

재미있는 것은 실수를 범하게 만든 요인으로 가웨인은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 보다 더 큰 요인으로 그는 여성의 성(性)을 들고 있다. 가웨인이 녹색의 띠를 버실락에게 던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겁 많고 탐욕스런 마음이며 저주 받을지어다!/네 안에 악행과 악덕이 있고 덕은 아래 내려져 있구나! (“Accursed be a cowardly and covetous heart!/In you is villainy and vice, and virtue laid low!”--*GGK* II. 2374-75). 여기에서 가웨인은 자신의 실수가 직접적으로 녹색의 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 페미니스트적 목소리로 이를 통렬하게 비난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작품에 초반에 왕비인 귀니비어(Guinevere)에게는 물론 유혹에 빠지기 마지막 순간까지 버실락의 부인에게 그가 보여준 품위 있고 공손한 기사도적 태도와는 상반되어 보인다. 그러나 가웨인의 목소리에는 당시 기사들이 탐하였던 여성의 성을 비판하는 시인의 목소리가 숨겨있는 것이 확실하다:

But if a dullard should dote, deem it no wonder,  
And through the wiles of a woman be wooed into sorrow,  
For so was Adam by one, when the world began,  
And Solomon by many more, and Samson the mighty--  
(2414-17)

바보가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져들어,  
여자의 간계로 인하여 구애를 받고 슬픔에 빠졌다면, 이는 놀랄  
만한 것이 아닐진대,



세상이 시작했을 때, 아담이 여자에 의해 그렸고,  
솔로몬은 보다 많은 여자에 의해 그렸으며, 힘이 센 삼손도--

버실락 또한 죽음은 여성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가웨인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실수가 여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해준다 (GGK II. 2354-57). 가웨인 시인은 가웨인과 버실락의 목소리를 통하여 기사와 여성 혹은 기사도와 사랑은 결코 융합될 수 없으며, 후자에 의해 전자는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당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추론은 당시 기사도와 관련한 책의 내용에서 입증된다. 레이먼 넬, 크리스틴 드 피잔 그리고 제프리 드 샬니 모두 기사와 여성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사와 여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여성에 대한 기사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세속적 그리고 종교적 덕목과 비교하여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기사의 사랑은 기사도를 타락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레이먼 넬은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웨인 시인은 가웨인과 버실락 부인의 관계, 다시 말해서, 기사도와 여성의 관계를 통하여 바로 당시 기사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물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당시 기사들의 어려움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 Ⅲ. 기사도의 꽃으로서 가웨인

14세기 기사계급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가웨인을 설정함으로써 시인은 당시 기사들의 문제와 함께 이상적인 기사도를 극화시키고 있다. 작품의 시작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아더왕 시대를 대표하는 가웨인의 이상적인 모습은 작품이 중반으로 발전하면서 현실 속에서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씩 타락하고 변질되어간다. 그러나 작품에서 가웨인의 변화된 모습을 시인이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오각형의 표지가 상징하는 기사의 모든 덕목을 하나의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현실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실수를 범하긴 하나 결론적으로 시인은 가웨인을 세속적 덕목과 종교적 덕목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상적 기사로 그리고 있다. 가웨인이 범한 실수에 대하여 자신을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들, 예를 들어 버실락과 아더왕을 비롯한 그의 기사들이 내리는 평가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가웨인은 자신이 범한 실수를 오각형의 표지가 상징하는 완벽한 기사도에 적용하여 스스로를 엄격하게 책망한다. 이와는 반대로, 아더왕을 비롯한 동료 기사들은 죽음의 모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가웨인을 기사도의 모범으로서 칭송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기사로서 가웨인을 직접 검증했고 그의 실수를 용서해준 버실락은 가웨인을 평가하는데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상적 기사도에 비추어볼 때, 가웨인의 실수는 분명히 죄가 되긴 하나, 이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에서 비롯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시인 또한 가웨인에 대한 세 가지 평가 가운데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단지 독자들에게 최종판단의 몫을 돌림으로서 당시 기사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말하고 있다. 당시 독자들에게 시인은 특별하게 어느 하나의 기사도적 덕목을 강조하거나 가르치고 싶은 의도는 없는 듯싶다. 또한 당시 기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로맨스의 경우, 대부분 작품에 나타나는 기사도의 덕목들 간의 일어나는 상충과 갈등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완전히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티앙(Chretien)의 로맨스인 『에릭과 에니드』(*Erec et Enide*) 그리고 『이베인』(*Yvain*)의 경우, 기사 보여주는 여성에 대한 사랑과 세속적 덕목인 용맹성이 서로 상충되어 갈등이 야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해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외에도 일부 다른 작품들에서는 세속적 덕목과 종교적 믿음이 상충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해결이 되며 이로 인하여 갈등을 겪던 기사도 완벽한 모습을 갖춘 이상적 기사로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하게 된다. 이러한 해결의 양상을 가웨인 시인은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다. 시인은 과거

이상적인 기사들의 모습보다는 단지 당시 기사계급을 대표하는 가웨인의 행동을 통하여 당시 기사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기사도 정신이나 가치가 완전히 타락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전통과 이상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다. 시인의 목소리와 제일 가까워 보이는 버실락의 목소리를 통하여 시인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가웨인을 기사도의 꽃으로 표현하고 있다. 과거가 아닌 당시 현실상황을 가만해 볼 때, 가웨인 정도면 그래도 이상적이며 완벽한 기사로 시인은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넓은 세상에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흰 완두콩에 보다 값있고 소중한 진주가 대비될 수 있듯이/가웨인은 다른 기사들과 비교해서 그러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Of all that ever walked over the wide earth;/As pearls to white peas, more precious and prized/So is Gawain, in good faith, to other gay knights--*GGK* ll. 2363-65).

주제어 : 14세기 영국문학, 기사도, 아더왕의 문학적 전통, 『가웨인과 녹색의 기사』

## 인용 문헌

- Allmond, C. T. *The Hundred Years War: England and France at War, c. 1300-c. 1450*. Cambridge: Cambridge UP, 1988.
- Anderson, J. J. "The Three Judgements and the Ethos of Chivalry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Chaucer Review*. 24 (1990): 337-55.
- Barnie, John. *War in Medieval Society*. Ithaca, New York: Cornell UP, 1974.
- Benson, Larry. *Art and Tradition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New Brunswick, N. J.: Rutgers UP, 1965.
- Bloomfield, Morton M.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n Appraisal." *PMLA* 76 (1961): 7-17.
- Christine de Pisan. *The Book of Fayttes of Armes and of Chyvalrye*. Trans., and printed by William Caxton. Ed. Alfred T. P. Byles, London: EETS OS, 1932.
- Mehl, Dieter. *The Middle English Romance of the Thirteenth and Fourteenth Centuries*. London: Routledge & Kegl Paul, 1967.
- Engelhardt, George J. "The Predicament of Gawain." *Modern Language Quarterly* 16 (1955): 218-25.
- Fisher, Sheila. "Taken Men and Token Women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Seeking the Woman in Late Medieval and Renaissance Writings: Essays in Feminist Contextual Criticism*. Ed. Sheila Fisher & Janet E. Halley Knoxville: U of Tennessee P, 1989.
- Ganim, John M. "Disorientation, Style and Consciousness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PMLA* 91 (1976): 376-84.
- Geoffroi de Charny. *The Book of Chivalry*. Trans. Richard

- Kaeuper and E. Kennedy.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6.
- Green, Richard H. "Gawain's Shield and the Quest for Perfection." *ELH* 29 (1962): 21-39.
- Huizinga, J. *The Waning of the Middle Ages*. London: Arnould, 1924.
- Kaeuper, Richard. *War, Justice and Public Order*. Oxford: Clarendon P, 1988.
- Keegan, John. *The Face of Battle*. New York: Viking, 1976.
- Keen, Maurice. *Chivalry*. New Haven: Yale UP, 1984.
- Kilgour, Raymond L. *The Decline of Chival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P, 1937.
- Lester, G. A. "Gawain's Fault in Terms of Contemporary Law of Arms." *Notes and Queries* 221 (1976): 392.
- Lull, Ramon. *The Book of the Ordre of Chyvalry*. Trans., and printed by William Caxton. Ed. Alfred T. P. Byles. London: EETS OS, 1926.
- Mathew, Gervase. "Ideals of Knighthood in Late Fourteenth Century England." *Studies in Medieval History Presented to F. M. Powicke*. Oxford: Clarendon P, 1948.
- Moorman, Charles. *A Knyght There Was*. Lexington, Kentucky: U of Kentucky P, 1967.
- Painter, Sidney. *French Chivalry*. Baltimore: Johns Hopkins P, 1940.
- Powicke, Michael. *Military Obligation in Medieval England*. Oxford: Clarendon P, 1962.
- Owst, G. R. *Literature and the Pulpit in Medieval England*. Cambridge: Cambridge UP, 1913; 2nd revised ed. Oxford: Blackwell, 1961.
- Savage, Henry L. *The Gawain Poet: Studies in His*

*Personality and Background.* Chapel Hill: North Carolina UP, 1956.

Srebnick, Walter.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nd Late Medieval Aristocratic Culture." *Mid-Hudson Language Studies* 12 (1989):13-23.

Waldron, R. A.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Ed. Evanston: Northwestern UP, 1970.

Wendy Clein. *Concepts of Chivalry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Norman, Oklahoma: Pilgrim Books, 1987.

Wright, Thomas L. "Luf-Talkyng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pproaches to Teaching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Eds. Miller, Miriam Youngerman & Chance, Jane.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86.

Abstract

Knighthood as reflected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Dongchoon Lee

By constructing Gawain as the fictional representative of the aristocratic class in the fourteenth century, the Gawain-poet dramatizes the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of chivalric values and vision, which the audience realized in the real world. Gawain falls in his own estimation from the remote, fictional world of Arthur to the real world which includes knights who are not only fallible, but disloyal, avaricious and evil. Though the poet presents the cluster of chivalric traits signified in Gawain's pentangle as an ideal example for knighthood, on the other hand, he realizes that these values are too perfect for a human being to live up to in all respects. Moreover, the poet portrays Gawain as a product of the military and religious chivalry that cannot be easily compromised. This is hinted at in the various perspectives on Gawain's failing which Gawain himself, Arthur's knights and Bertilak show. Gawain blames himself for his failure with the categorical, almost puritanical terms. Arthur's knights glorify Gawain's survival as the success of military chivalry. Bertilak, however, takes a middle position: finding Gawain guilty but at the same time demonstrating the natural weakness of human nature. The poet neither praises nor discredits any judgement among them, leaving the final judgement to the audience and asking them to perceive the

complexities and the tensions in chivalry. Thus, readers are provoked into evaluating each view and thereby gaining a broad understanding of chivalry in the fourteenth century.

key words : 14th century English literature, knighthood, Arthurian traditio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